07
vol. 554

월간 내일

전국민 고용보험

예술인도, 특고*도, 플랫폼 노동자도 고용보험과 함께 점핑 점핑!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그맨 배정근이 참여한 전국민 고용보험 기획 인터뷰는 21p에서 볼 수 있습니다.

행복 일터
Intro
I'm your pace maker

희망 일터
슬기로운 한국판뉴딜 생활
재택근무로 완성하는 더욱 즐거운 게임 세상

힐링 일터
미디어 속 노동읽기
슬기로운 의사 생활 속 병원 근무자의 일상 궁금한가요?

월간 내일

7
VOL. 554

표지이야기

예술인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플랫폼 노동자도
고용보험과 함께 점핑 점핑!

I'm your pace maker

행복 일터

04 Intro
I'm your pace maker

08 Plus
What is 고용보험?!
알기 쉽게 정리해준다고용~

16 System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톺아보기

21 People
마침내 다가온 전국민 고용보험

희망 일터

28 슬기로운 한국판뉴딜 생활
재택근무로 완성하는 더욱 즐거운 게임 세상
-㈜플레로게임즈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지원 사업장

32 굿&굿 오피스
77년 장수 헬스케어 기업의 꿈
-복정제형(주)

36 인생 2막
소년공, 드라이버가 되다
-이인홍 배송기사

40 청년꿈터
무역회사 직원에서 쇼핑몰 운영까지
나의 길을 만들다
-이진현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자

44 내일잇슈
정책기자단이 전하는
흥미진진 고용노동 정책 이야기

48 고용노동 뉴스

힐링 일터

60 미디어 속 노동읽기
슬기로운 의사 생활 속 병원 근무자의 일상
궁금한가요?

64 JOB툰
어디서나 당당하게 벌기
춥거나 덥거나 에어컨 쟁탈전

66 직장탐구생활
취업과 이직의 치트키
포트폴리오 잘 만드는 꿀팁

68 고민타파
고용보험이 낯선 우리...
위태로운 일상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72 저녁이 있는 삶
언택트 시대의 자기 계발
비대면 클래스로 하자!

74 직장인 건강상식
직장인 점심 메뉴 선정
건강하게 해볼까?

76 주말에 뭐 할래?
7월 영화·음악 추천

80 #내일스타그램
월간내일 독자들의 사연

82 애독자 퀴즈

고용노동부 소식지 <내일>
통권 강남 라 00389(통권 554호)
발행처 고용노동부
발행인 고용노동부 장관
편집위원 고용노동부 대변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전화 044-202-7782
홈페이지 www.moel.go.kr
웹진 www.labor21.kr
기획·제작 큐라인

I’m your pace maker

✳

마라톤 코스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잠시 쉬어 가는 순간을 필연적으로 맞이합니다.
직업과 일의 사이클에서도 마찬가지죠.
치열하게 일하다가도 업무에서 물러나는 순간을
우린 종종 맞이하곤 합니다.
피치못할 상황으로 일을 쉬게 될 때,
완주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뛸 수 있도록
‘잠시 잘 쉬었다가 다시 뛰자’고 말하며 옆에서 돕는 페이스 메이커,
고용노동부는 여러분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일을 쉬게 될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또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이에 대한 해답으로 나온 것이 바로 고용보험입니다.
흔히 4대 보험 중 하나의 보험이라고 알려진 고용보험은
실업의 상황을 미리 대비하는 사회보장보험이죠.
지난 2020년 12월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도입을 발표했는데요.
전국민 고용보험을 통해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형태의 근로자도
실업의 상황에 충격을 완화하고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할 계획입니다.
그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머물던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전국민 고용보험을 향한 그림도
서서히 눈앞에 그려지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2020년 12월부터 시작된 예술인 고용보험부터 시작해서,
2021년 7월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전까지 플랫폼
노동자와 자영업자까지도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로드맵을 짜고
있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우리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또 고용노동부에서는 어떤 준비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을까요?
함께 알아봅니다.

글 편집실

What is 고용보험?!
알기 쉽게 정리해준다고용~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 들어는 봤지만, 막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는 분이 많을 텐데요. 과연 고용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과 어떻게 다르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알기 쉽게 차근차근 정리해드립니다!

고용보험이 뭔가요?

고용보험은 근로자 등과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여 마련한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지원하며, 근로자 등이 실직한 경우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코로나19로 실업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때 고용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어떻게 하나요?

고용보험은 19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는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하여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고용안정사업관련 각종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직업능력개발관련 각종 지원업무를 맡고 있어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계속 확대되어 왔다고요?

맞습니다! 그간 고용보험은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기업이 확대되어 왔어요. 고용보험은 과거 규모가 큰 기업에서 적용되었는데요.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해 현재는 1인 이상의 소규모 기업도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구분	95.7.1	97.7.1	98.1.1	98.3.1	98.7.1	98.10.1	04.1.1
실업급여	30인 이상		10인 이상	5인 이상		1인 이상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70인 이상		50인 이상		5인 이상	1인 이상	
건설업의 총 공사금액	40억 원	44억 원	34억 원		3억 4천만 원		2천만 원

보험료는 얼만큼 내야하죠?

고용보험의 보험료는 현재 기업규모에 따라서 비율이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비율은 아래 표를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구분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8%	0.8%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150인 미만 기업	-	0.25%
	150인 이상 기업(우선 지원대상기업)	-	0.45%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	-	0.65%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0.85%

* '21.7.1 이후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경우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를 각각 0.7% 부담

고용보험 가입 방법

Step by Step

고용보험이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신청하는지 잘 모르겠나요?
아래 매뉴얼을 따라 차근차근 신청해볼까요?

여기서 잠깐!

고용보험 가입은 누가 하나요?

고용보험은 주로 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피보험자격을 얻게 되며,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함으로써 가입이 됩니다. 피보험자격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해야 하는데요.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어요!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하나요?

일반 사업(계속사업): 사업자등록증, 임금대장, 생산제품설명서, 근로자고용정보신고서 등
건설업 또는 벌목업: 공사도급계약서(공사비내역서 포함), 건축 또는 벌목허가서 등

온라인 신고를 원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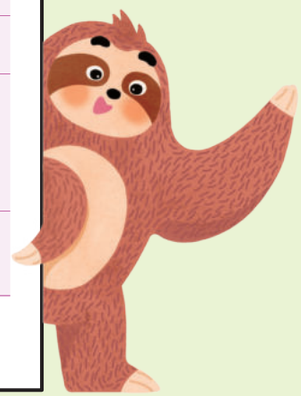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에서 인터넷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의가입 시 해당 사이트를 통해서 가입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신고의 기한은 일반사업장은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건설업은 공사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오프라인 신고를 원한다면?

오프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보험가입자가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서류를 작성했다면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 관할의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해서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 가입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보험관계의 성립일과 제출서류

	의무가입사업장		임의가입사업장	
성립일	해당 사업이 시작된 날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해당하게 된 날		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접수한 날의 다음날 (하수급인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공사 실제 착공일)	
제출 서류	일반사업	건설공사 및 벌목업	일반사업	건설공사 및 벌목업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초본 기타(근로자명부 등)	보험관계성립신고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비내역서포함) 건축 또는 벌목허가서	보험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초본 기타(근로자명부 등)	보험가입신청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비내역서포함) 건축 또는 벌목허가서
제출 기한	보험관계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 (14일 이내 종료되는 사업은 종료일의 전날)		건설공사 및 벌목업의 경우는 사업 종료일의 전날	



고용보험 개인 취득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자 훈련지원

고용보험 사업장에서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전액 국비지원이나 일부 훈련의 정부지원훈련비 초과분은 훈련생부담)와 훈련수당을 지원합니다.

재직근로자 훈련지원

근로자 수강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직업 능력개발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경우 지원합니다.

육아휴직급여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지급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고 휴가기간 중 최초 5일분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구직등록

워크넷(WORK-NET)에 구직신청을 하면 고용센터의 전문상담원과의 상담을 통해 원하는 일자리를 추천해드립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며 소득이 발생한 분에게 지원합니다.

사업주,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창출 장려금 #고용안정 장려금
#직장어린이집 지원금(인건비) #직장어린이집 지원금(운영비)

고용유지 지원금

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등)를 취하여 당해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고용유지를 한 조치기간 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 휴직수당 또는 임금액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고용창출 장려금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거나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고용, 청년 및 장년 고용, 장시간 근로조건 개선 등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을 통한 고용, 국내복귀기업의 고용 등과 같이 신규 고용을 하거나 신규 고용으로 일자리 수가 증가하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 장려금

재직 근로자의 일자리 질을 높인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나 전일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일시적으로 단축한 경우, 시차출퇴근제·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활용한 경우,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로 기존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킨 경우 등의 상황에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직장어린이집 지원금(인건비)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근로자를 위하여 어린이집(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보육교사 등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보육교사, 보육시설의 장 및 취사부에 대해 월 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1인당 최대 월 120만 원까지 지원(대규모 기업은 최대 월 60만 원까지)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일부를 보육아동의 수에 따라 차등지원해줘요.

직장어린이집 지원금(운영비)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해 기존의 보육교사 등 인건비 이외에 운영비 일부도 추가로 지원해주는데요. 보육아동의 수에 따라 월 200만 원부터 최대 월 520만 원까지 차등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글 편집실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톺아보기

정부는 2020년 12월 23일 고용보험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발표를 통해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고용보험 확대가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 걸까요?
관련 정책과 함께 꼼꼼히 뜯어봅니다.

지금 왜 전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할까요?

모든 취업자에게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을 제공할 필요가 더욱 커졌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업자가 늘어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23일 전국민 고용보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고용보험 가입자의 목표는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 가입자는 2019년 기준 1,367만 명에 달합니다. 앞으로 고용보험 가입자를 단계적으로 늘려서 2025년에는 일정 소득 이상의 근로자가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죠.

2019년	2022년	2025년
1,367만 명	1,700만 명	2,100만 명

단계적 확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기존의 고용보험 가입을 사업주 신고에 기반하여 임금근로자 위주로 적용했다면, 앞으로는 임금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소득에 기반하여 모든 취업자에게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예술인을 비롯한 특고 12개 업종,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임시 및 일용직 근로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확대할 계획인데요. 적용 확대 대상과 그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 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예술인

지난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이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문화예술용역 관련계약의 월평균소득 50만 원 미만인 경우 적용제외되며, 1개월미만의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은 소득에 관계없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2021년 7월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해당되는 직종은 아래 12개 직종인데요.
①보험설계사, ②택배기사, ③학습지 방문강사, ④교육교구 방문강사, ⑤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⑥대출 모집인, ⑦신용카드 회원모집인, ⑧방문 판매원, ⑨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⑩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⑪건설기계조종사, ⑫화물차주 등이 해당됩니다.

플랫폼 종사자 및 기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022년 1월부터는 디지털 및 모바일 플랫폼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근무하는 배달 기사 및 대리운전 기사 등이 해당될 텐데요. 2021년 7월에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도 추가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자영업자

2025년까지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영업자는 현재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하고 있지만 가입률이 낮은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이처럼 고용보험의 보장을 받지 않는 자영업자와의 사회적 대화를 시도한 뒤 단계적으로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이 확대되도록 할 것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여러분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수급신청으로 내일의 위험을 대비하세요!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수급자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앞으로 비자발적 실업으로 생계가 어려울 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고, 출산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출산전후급여를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서 각각 급여의 수급요건을 확인한 뒤 내 일의 위험을 든든하게 대비하세요!

▶ 구직급여 수급요건 및 지급 수준·기간

수급요건	1. 기여요건 충족: 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근로자, 예술인으로 납부한 기간 합산 가능(특고로 최소 3개월 종사 필요) 2. 비자발적 이직: 수급제한 사유(자발적 이직, 중대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특고의 경우 일정 이상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도 이직사유로 인정 3.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지급 수준	1일 지급액은 기초일액의 60%(상한액 66,000원)
지급 기간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

▶ 출산전후급여 수급요건 및 지급 수준·기간

수급요건	1.출산(유산·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2.출산(유산·사산)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3.출산(유산·사산)일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지급 수준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상한액: 월 200만 원, 하한액: 월 80만 원)
지급 기간	출산전후 연속하여 90일(다태아 120일)

***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소득감소 기준은 무엇인가요?**

❶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노무제공계약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의 소득보다 30% 이상 감소
❷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평균소득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글 권찬미 | 사진 박찬혁

마침내 다가온 전국민 고용보험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노동자와 함께 전국민 고용보험을 말하다!

전국민 고용보험이 실현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갑작스러운 일의 공백으로 생계가 위태로운 누군가가 보호받을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꿈꾸며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를 만나
고용보험의 확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힘내서 비상구로 탈출하시죠

배정근 개그맨

Q_ 개그콘서트 폐지 후 10여 년,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지금이 딱 폐지 1여 년이 되는 시기더라고요. 당시 많은 선배님과 동기들이 정말 슬퍼했던 것 같아요.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가 된다는 슬픔도 있었지만 내 청춘의 추억과 고향이 사라진다는 생각에 눈물이 많이 났죠. 카메라에도 그런 장면이 잡혔더라고요. 지금은 낮에는 개인 방송 채널의 콘텐츠 제작을 하고 저녁에 플랫폼 기반의 배달 라이더 일을 주로 하고 있어요.

Q_ 배달 일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사실 제가 개그맨 지망생일 때도 수입이 거의 없어서 배달 일을 자주 했어요. 당시 지망생들이 식권 한 장 받고 월급도 없이 공연을 했거든요. 지방에서 올라온 저에게 월세나 생활비를 위한 아르바이트는 필수였죠. 개그콘서트가 끝나고 한 달 동안 사실 아무 것도 못하고 '내가 뭘 할 수 있지?'라는 생각에 휩싸여 있었어요. 그런데 슬픔에 오래 빠질 겨를이 없었어요. 아내가 임신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다시 배달을 시작했어요. 플랫폼으로 바로바로 원하는 스케줄에 맞춰서 일할 수 있어서 접근하기 쉬웠던 것 같아요.

Q_ 배달 라이더 같은 플랫폼 노동자도 내년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예술인 고용보험이 작년 12월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개그콘서트를 그만두면서 예술인으로서 가입이 어려워졌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 배달 라이더나 플랫폼 노동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 좋은 소식이란 생각이 들어요.

Q_ 고용보험은 나에게 OOO이다!

또 다른 '비상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비상구는 긴급한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문이 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같이 힘내서 비상구를 함께 나가시죠!

꿈의 요람을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신아 웹툰 작가

Q_ 웹툰은 많이 보지만 작가들의 노동 환경에 대해서는 독자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웹툰 작가의 계약은 굉장히 천차만별인데요. 흔히 여러분이 보시는 포털의 웹툰 플랫폼과 다이렉트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에이전시를 끼고 다중으로 계약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다중계약이다 보니 발생하는 수익도 20%가량으로 적다고 볼 수 있죠.

Q_ 웹툰 작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든 점과 원동력을 하나씩 꼽아본다면?

힘든 점은 적은 수입이죠. 사실 웬만한 문제는 돈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웃음). 게다가 웹툰 작가들은 하루 평균 노동시간이 상당히 많아요. 지난 달에 하루 평균 12시간 근무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의 길을 걷는 이유가 있다면 정말 단순해요. 작품들이 쌓이는 것을 보고 느끼는 창작자로서 기쁨 그 자체인 것 같아요.

Q_ 고용보험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고요?

네 정말 '앙망'해왔죠. 주위 작가한테도 계속 이야기 했거든요. "우리에게 당장 수입원이 없더라도 어떤 작품을 하고 싶고, 어떤 직장에 가고 싶은 지 다음 스텝을 선택할 수 있는 3개월의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고요. 그리고 그 시기가 도래한 만큼 주변에 모든 예술인 분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Q_ 고용보험은 나에게 OOOO이다!

고용보험은 '꿈의 요람, 인큐베이터'다! 사실 실업자에게 3개월의 시간을 벌어준다는 것은 다음 스텝의 꿈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장의 생계가 걱정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선택은 필연적으로 다를 거잖아요. 아이들을 요람에서 흔들면서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처럼, 고용보험은 실업자들이 다음 스텝을 선택하기까지 꿈의 요람이 되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가 잘 보장되는 세상을 꿈꿉니다

유승원 정수기 점검원

Q_ 코로나19 이후 1여 년, 실업 문제를 겪는 동료들이 많다고요?

네, 대면 서비스 업계다 보니 타격이 큰 것 같아요. 저희 정수기 점검원들은 점검도 하지만 동시에 영업도 해야 생계를 유지할 만한 수입이 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자체가 힘들어지다 보니 수입이 너무 감소해서 일을 그만두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또 코로나 시국으로 예민해진 고객님도 많으시고요. 이로 인한 감정노동에 시달리다가 업계를 떠나게 되는 분도 있었어요.

Q_ 고용보험이 2021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소식 알고 계신 가요?

사실 이 일에 종사하면서 아르바이트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것 같아서 힘들었거든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현실은 노력한 만큼 돌아온다는 것이었는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그간 사각지대에 머무르면서 열심히 일해도 퇴직금도 없이 지내야 했어요. 그런 점이 참 속상했는데 그래서 더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Q_ 그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서 마음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알아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점차 확대된다는 소식에 기뻐요. 동시에 언젠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말도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개념을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잘 보장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Q_ 고용보험은 나에게 OOOO이다!

고용보험은 '동아줄'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언제 업무가 해약될지도 모르는 특수고용 상황에서 재고용의 기회와 일정 기간의 수입을 보장해주기 때문이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위해 힘쓰는 고용노동부도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3인 3색 인터뷰이와 함께한

내일 식당 먹방 食터뷰

영상으로도 보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인터뷰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만나보세요!
따뜻한 응원의 댓글과 주소를 남겨주신 분들에게
늘봄이(고용노동부 캐릭터) 굿즈를 전달드립니다!

#전국민고용보험 #월간내일 #고용보험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노동자 #내일식당

Hopeful

함께 가면 멀리 갑니다

28 재택근무로 완성하는
더욱 즐거운 게임 세상

32 77년 장수 헬스케어 기업의 꿈

36 소년공, 드라이버가 되다

40 무역회사 직원에서 쇼핑몰 운영까지
나의 길을 만들다

44 정책기자단이 전하는
흥미진진 고용노동 정책 이야기

48 고용노동 뉴스

글 강진우 | 사진 ㈜플레로게임즈 제공

안전망강화 한국판뉴딜

재택근무로 완성하는 더욱 즐거운 게임 세상

㈜플레로게임즈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지원 사업장

* 본 지면의 사진들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촬영된 것으로 기업에서 제공받은 사진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맞아 적극적인 재택근무 시행으로 게이머와 직원 모두를 더욱 행복하게 만든 IT 기업이 있습니다. 2015년 설립 후 소셜네트워크게임(SNG)의 강자로 떠오른 ㈜플레로게임즈인데요. 이 기업의 체계적인 재택근무 추진·시행의 배경에는 고용노동부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일환인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IT 기업과 재택근무의 이유 있는 만남

#SNG의_명가

㈜플레로게임즈는 '에브리타운', '두근두근 레스토랑', '바이킹아일랜드' 등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서비스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게임(SNG)을 다수 개발한 실력 있는 IT 기업입니다. IT 기술의 첨단에 선 회사인 만큼, 코로나19가 확산되자 타 기업 대비 잘 구축된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작년 3월부터 재택근무 운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모회사인 위메이드의 재택근무 운영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데다가 갑작스럽게 재택근무 전환을 맞다 보니, 관련된 근거규정과 노무 관계 서류 부분이 다소 미흡했습니다. 이에 플레로게임즈 이호대 대표는 재택근무를 회사의 사정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의 지원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예기치 않은 팬데믹으로 인해 부랴부랴 재택근무 시행에 나섰지만, IT 인프라가 잘 갖춰진 데다가 업무 분장이 뚜렷한 우리 기업의 특성상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충분히 재택근무를 지속할 수 있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그렇기에

예기치 않은 팬데믹으로 인해 부랴부랴 재택근무 시행에 나섰지만, IT 인프라가 잘 갖춰진 데다가 업무 분장이 뚜렷한 우리 기업의 특성상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충분히 재택근무를 지속할 수 있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을 통해 얻은 경험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참신한 시도를 더해 우리 회사에 꼭 맞춘 재택근무제를 완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기회에 재택근무 관련 제도를 제대로 손봐야겠다고 결심했고,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을 통해 한층 전문적이고 다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기쁘게도, 그 예상은 정확하게 들어맞았죠."

컨설팅으로 체계화된 재택근무 제도

#재택근무_종합_컨설팅

플레로게임즈는 구성원의 약 80%가 30대 이하 근로자로 이뤄진 젊은 기업입니다. 게다가 게임 개발 기업의 특성상 대부분의 근로자가 IT 환경에 익숙한데요. 그러다 보니 직원들은 재택근무 도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섰고, 컨설팅 결과에 대한 이행 의지도 강력했습니다.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은 노무 전문가와 IT 전문가가 매주 1회 플레로게임즈에 방문하며 진행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인터뷰·각종 자료 검토 결과에 따라 직무분류 체계를 정립했고, 직무별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했습니다. 이후 각 직무의 근무환경, 근무 장소, 직무수행 방식, 직무수행 결과 등을 평가해 재택근무에 적합한 적합직무 풀(Pool)을 만들었는데요. 인사·총무·비서팀의 경우 적합직무 평가점수가 낮게 나왔지만 경영진의 강력한 의견에 따라 13개 부서를 적합직무로 선정했고, 곧 시범운영에 돌입했습니다.

"작년 11월 26일부터 약 3주에 걸쳐 전사적으로 새로운 재택근무 체제를 시범운영했는데요.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지만, 대체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데다가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을 상당히 낮출 수 있으니 효율성과 안정감이 높아졌고, 이는 조직 만족도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업무와 일상이 제대로 구분되지 않고, 연장근무에 대한 보상안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이는 꾸준한 제도 고도화와 구상원 인식 전환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직원의 행복과 게이머의 즐거움을 연결하다

#일과_삶의_행복한_조화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은 플레로게임즈에 큰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전무했던 재택근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직원들은 든든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인 재택근무를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게임 기업의 특성상 자유로운 사고력과 창의력이 직원들의 필수 덕목인데, 틀에 박힌 사무실을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영감과 아이디어를 얻고 있다는 게 직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특히 전 직원의 42%를 차지하는 여성 직원들의 경우, 일과 육아를 효율적으로 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택근무에 대해 더욱 큰 지지를 보냈는데요. 여기에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의 전문성까지 더해졌으니, 플레로게임즈에 재택근무가 성공적으로 안착했음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입니다.

"올 1월 재택근무 활용률은 76%인데요. 연초라서 대면 회의가 필요한 시기임에도 이렇듯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직원 116명 중 100명이 시범운영에 참여했을 만큼 재택근무에 대한 호응이 엄청난데요. 앞으로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을 통해 얻은 경험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참신한 시도를 더해 우리 회사에 꼭 맞춘 재택근무제를 완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제로 플레로게임즈는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과 연계된 중소벤처기업부의 비대면서비스 바우처사업에 참여해 재택근무에 도움이 되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 고용노동부의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및 간접노무비 지원을 받는 등 유의미한 변화와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즐겁고 행복한 일상을 만들려는 플레로게임즈의 노력이 게이머들의 더욱 큰 즐거움과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안전망강화 한국판뉴딜

늘봄이's Advice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이 궁금하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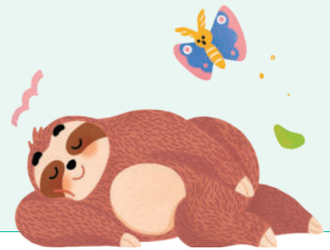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이 뭔가요?

코로나19 이후에도 재택·원격 근무가 일상적인 근로 형태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기업 맞춤형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비용을 전액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의 지원 내용이 알고 싶어요!

- 재택근무 도입 범위 및 운영방식 검토, 적합직무 선별
- 운영규정 마련 등 인사·노무관리 체계 구축
- 재택근무 관련 노동법적 쟁점사항 자문
- 재택근무 친화적 조직문화 개선 교육
- 재택근무 IT 인프라 구축·활용방안 자문
-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재택근무 관련 정부지원사업 연계

* 사업문의: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502, 7497)



글 권찬미 | 사진 복정제형(주) 제공

* 본 지면의 사진들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촬영된 것으로 기업에서 제공받은 사진입니다.

77년 장수 헬스케어 기업의 꿈

복정제형(주)

최근 어버이날 선물 품목으로 단연 돋보이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안방 극장에서도 과거에 비해 자주 등장하고 있는 '안마의자'죠.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안마의자를 만들고 판매하는 사람들의 일터는 어떨까요? 일터 역시 건강한 모습일까요? 헬스 케어 기기를 만드는 브랜드 코지마로 알려진 복정제형(주)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77주년 장수 기업의 신념

"코지마는 '국민건강에 이바지한다'는 정체성과 방향성을 갖고 탄생한 복정제형(주)의 종합 헬스케어 브랜드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신 안마의자를 비롯해서 마사지 기기나 혈압계 등 건강측정 기기를 통해서 헬스케어 기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기기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복정제형(주)의 이혜성 대표이사가 말했습니다. 복정제형(주)은 지난 1945년 밝한양행이라는 작은 상점으로 설립되어 올해로 77주년을 맞이하는 장수 헬스케어 기업이 되었습니다. 장수 기업인 만큼 회사에는 장기 근속해 온 직원들이 많습니다.

"30년, 33년째 장기 근속하는 직원들이 아직도 있을 정도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기업문화가 오래도록 남아있습니다. 좋은 기업 문화가 뒷받침되어야 좋은 인재들이 회사에서 오래 머물며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람을 중시하는 기업 문화를 통해 첫 직장으로 복정제형(주)에 입사하는 청년들이 장기근속하고 싶은 기업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4년 연속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의 비결

2021년 현재 약 230여 명의 임직원이 근무하는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한 복정제형(주)은 4년 연속 청년친화 강소기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비결을 묻자 이혜성 대표이사가 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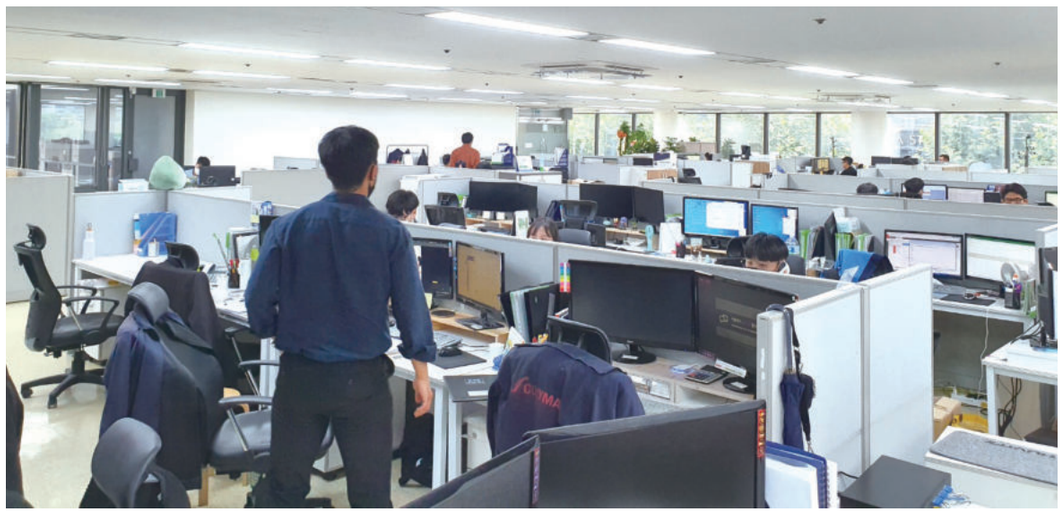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온 점이 가장 핵심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직원도 함께 성장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직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개선했던 크고 작은 노력들이 결과적으로 선정 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복정제형(주)은 청년 인력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현장 실습 제도도 마련해 취업까지 이어질 수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현장실습이라는 울타리 내에서 기업을 체험하면서 실무를 배울 수 있고, 스스로 해당 직무가 본인에게 잘 맞는지 확인하는 값진 시간이 되고, 기업에서도 실습생을 지원하고 교육해 졸업 뒤 채용까지 연계하면서 보다 좋은 인재들을 발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고 밝힙니다. 그 외에도 산학협력이나 대학과의 협약을 통해 우수 인재를 추천받고 적극적으로 취업의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조직 문화를 위한 부단한 노력

"최근에는 MZ 세대가 멘토로 경영진을 코칭 하는 '리버스 멘토링' 프로그램을 차용해 기업문화위원회를 설치해서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문화에 적응된 임직원들 보다 신입사원의 눈높이로 문화나 제도를 바라보고 의견을 들어보면 더 효과적인 해결방안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정제형(주)은 수평적이고 열린 조직문화를 마련하기 위해서 신입사원과 임원을 연결하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임원들은 이를 통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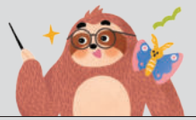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고, 신입사원 또한 회사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소통의 문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올해도 성장을 통해 시장에서 더 공고히 자리매김하고 직원들에게 더욱 든든한 일터로 발돋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직원들과 함께 '용감하게 도전하라'라는 내용을 공유하며 다짐하며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남은 올 한 해도 용감하게 도전하며, 성장하는 저희 직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행복하게 일하고 탄탄한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복정제형(주)의 행보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건강해지기를 바라봅니다.

복정제형의 우수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비결



사내 외국어 클래스 운영
- 영어 or 중국어

남녀 불문 출산 & 육아휴직 제공
- 최대 1년, 여성직원 대비 남성직원 활용비율 3배

리조트 회원권을 통한 휴가지원

각종 사내 소모임 활동 지원

18시 정각 'PC OFF'제도

글 윤진아 | 사진 이도영

소년공, 드라이버가 되다

배송기사 이인홍 씨

새벽공기 맡으며 대형트럭 운전석에 오른 이인홍 씨의 표정을 본 사람은 단박에 알아챌 겁니다. 지금 이 순간, 그가 정말 행복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거듭된 취업 실패로 낙담했던 이인홍 씨는 이제 즐거운 직업인이 되었고, 느리지만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무게중심을 옮기는 중입니다. 방향을 잡았으니, 이제 속도를 높여 나갈 차례입니다.

* 본 촬영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모퉁이를 돌면 열리는 새로운 세상

사람이 변했습니다. 일 참 야무지게 잘하는 소년공에서 숙련된 배송기사로, 기꺼이 변화를 자처했습니다. 왕복 4시간 거리의 울진에 배송 업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퇴근길. 이인홍 씨가 유년시절 아무 걱정 없이 뛰어놀던 경주 황성공원을 오랜만에 찾았습니다. 젊은 날 뜨거운 꿈은 접었지만, 새로운 열정을 품은 그의 심장은 이제 더 넓은 세상을 향합니다.

"어려서 부터 손기술 하나는 제가 친구들 중에서 제일 좋았어요. 열아홉 살에 작은 자동차 부품 업체에 들어가 철판 찍는 일을 시작했죠. 친구들은 다 학교 다니는데 혼자 공장에 나가는 현실이 내심 아프기도 했지만, 열심히 일을 배웠어요."

스물여섯 살엔 섬유회사에 입사해 16년간 근무했습니다. 단순 생산직이었지만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령 한 번 안 피우고 늘 성실하게 제 몫을 해내는 청년에게 회사는 벤딩기 조작, 지게차 운전 등 하나 둘 새로운 업무를 맡겼습니다. '이인홍 씨 없으면 현장이 안 돌아간다'는 칭찬에 힘든 줄도 몰랐답니다. 그래서 더 상실감이 컸는지 모릅니다. 청춘을 바쳐 일한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이인홍 씨는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막막한 마음을 다잡고 구직활동을 시작했지만 번번이 낙담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을 통해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알게 됐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센터를 찾아가긴 했는데 선뜻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워낙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부끄럽지만 저는 글을 제대로 읽고 쓰지 못해요. 인터넷으로 취업 정보를 알아보는 것도 어렵고,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쓰기도 쉽지 않죠. 운 좋게 서류가 통과돼도 면접에서 글을 잘 모른다고 하면 바로 탈락이었어요."

배움도 짧고 이렇다 할 전문기술도 없다 보니 어느 것 하나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었다는 이인홍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그래도 일을 해야 하니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용기 내어 털어놓았습니다. 기본 자격도 안 되니 취업이 힘들다고 거절하면 어쩌나, 창피하고 걱정이 됐지만 경북동부경영자협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이정숙 컨설턴트는 당황한 기색 없이 오히려 이인홍 씨를 칭찬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불편한 점

**사는 내내 자존감이 바닥을 쳤었는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컨설턴트님이
설명하는 저는 꽤 괜찮은 사람 같더라고요.
약점보다는 강점에 집중하라고 독려하며
두 팔 걷어붙이고 도와 주신 덕분에
저에게 딱 맞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어요.**

이 많았겠어요. 그런데도 오랜 세월 인정받으며 직장생활을 하셨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제 저희가 알았으니 같이 노력해요. 아직 선생님을 알아보는 회사를 못 만나서 그렇지, 분명 꼭 맞는 인연이 나타날 겁니다."

다시, 나를 찾아 나서다

그날부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와 함께 자신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취업 계획을 세우고, 일자리를 열심히 찾았습니다. 몇 번의 면접 기회도 생겼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여전히 걸림돌이 되긴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이인홍 씨는 컨설턴트의 조언으로 생산직에 국한됐던 구직 범위를 배송·납품 운전직까지 넓혔습니다. 1종 대형 운전면허도 있고 건설기계 조정면허도 가지고 있으니 해볼 만하다는 조언에 용기가 났답니다.

"어찌 보면 저는 '안 되는 이유'가 참 많은 까다로운 구직자였어요. 그렇다고 그냥 포기하고 앉아있으면 누가 밥 먹여주나요?(웃음) 몇 번의 도전과 실패가 반복되던 중, 한 가스회사에서 LPG·고압가스용기 배송원을 구하고 있다는 연락이 왔어요. 배송처와 배송물품도 고정되어 있고, 출납기록을 하긴 하지만 어렵지 않아서 글을 잘 모르는 저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하는 만큼 신체 건강한 사람을 원하는데, 제가 관련 면허도 있고 체격도 건장하니 딱 적임자라는 컨설턴트 님의 말에 용기가 났습니다."

심호흡 크게 하고 찾아간 면접장에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했다는 면접관의 귀띔에 이인홍 씨는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게 면접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출근하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읽고 쓰는 데 부족함은 있지만, 누구보다도 성실한 마음과 강한 체력 그리고 끈기를 가진 사람. 그게 바로 저예요(웃음). 사는 내내 자존감이 바닥을 쳤었는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컨설턴트님이 설명하는 저는 꽤 괜찮은 사람 같더라고요. 약점보다는 강점에 집중하라고 독려하며 두 팔 걷어붙이고 도와 주신 덕분에 저에게 딱 맞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어요. 제가 원하는 분야에서 일하려면 어떤 지식을 습득하고 공부해야 하는지도 차근차근 알려주셨죠. 덕분에 미처 몰랐던 나의 역량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밥벌이의 즐거움

이인홍 씨는 요즘 4.5톤 배송트럭에 가스통을 싣고 전국을 누빕니다. 작년 봄부터 새로운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했으니, 어느덧 일 년 하고도 한 계절이 훌쩍 지났습니다. 몸은 좀 고되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행복하다며 "원래 운전하는 걸 좋아했던 나에게는 그야말로 천직!"이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평소 이인홍 씨는 다른 기사들보다 먼저 출근해 일찍 하루를 연다는데요.

"가방끈도 짧고 기술도 부족하니 성실로 만회해야죠(웃음). 정해진 코스에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하루하루가 감사합니다.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내 직장이 있다는 게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요. 그 뿐인가요? 운전하면서 그날그날 미세하게 달라진 바깥 풍경도 구경하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까지 듣고 있노라면 콧노래가 절로 나오죠."

이인홍 씨의 내공은 날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당당한 직업인이자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겠노라는 꿈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묻고 답하는 동안 만들어졌습니다. 책 대신 공구를 들었던 10대 소년의 꿈에 20대 청년의 열정과 30대의 신념, 40대의 연륜이 보태져 삶을 한층 건강하게 만드는 원칙이 생겼습니다. 화양연화(花樣年華). 꽃처럼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뜻으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를 말합니다. 나이만큼의 속도로 세월이 흐른다는데요. 열아홉 꽃 같은 나이에 공장 일을 시작해 이제 막 44km/h의 속도로 인생궤도에 진입한 이인홍 씨는 일하며 사는 매 순간이 화양연화라고 말합니다. 미숙했던 소년공 시절에도, 대형트럭을 몰고 유유히 전국을 누비는 지금도, 이인홍 씨는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기본을 잊지 않으며 삶을 바로 세우고자 노력합니다.

"다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일할 수 있게 되어 그저 감사한 마음이에요. 몇 년 전의 저처럼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말고 줄기차게 도전하세요. 약점투성이 였던 저도 이렇게 당당하게 제 몫 하며 살고 있어요'라고요(웃음)."

알다시피 세상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믿고 싶지 않은 불행을 경험하기도 하고, 무기력함에 빠져 끝없이 나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삶은 계속되고,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걸 말입니다. 인생의 바닥에서 새 희망을 찾았다는 이인홍 씨는 "세상에서 버려진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됐다"며 어깨를 활짝 폈습니다. 호되게 절망해본 덕에 삶의 의욕이 더 단단해지고 낯모르는 사람들에게서 가슴 뭉클한 온기도 느껴봤으니, 인생이란 게 결코 손해만 보는 장사는 아니랍니다. 내 삶을 좀 더 나에게 맞추고 하루하루 더 좋은 에너지로 채워가는 2021년 여름. 새 직장에서 생긴 가장 큰 변화가 뭐냐고 묻는다면, 이인홍 씨는 이렇게 답하겠노라고 했습니다. "다시, 꿈이 생겼어요!"

글 류다혜 | 사진 박찬혁

* 본 촬영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자 이진현 씨

무역회사 직원에서 쇼핑몰 운영까지 나의 길을 만들다

매일 쳇바퀴 돌 듯 반복되는 회사 업무에 지칠 대로 지칠 즈음, 매너리즘과 번아웃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무역회사에 종사하던 이진현 씨는 반복되는 일상에 낙담하지 않기 위해 이를 헤쳐나갈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는데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자신이 가장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판매하는 쇼핑몰 제작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을 경험한 그는 자신감을 갖고 새로운 청사진을 그려나가게 되었습니다.

불안함을 이길 새로운 도전

이진현 씨는 오랜 기간 무역회사에 종사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연차가 쌓이는 만큼 업무 숙련도가 높아졌지만, 역설적으로 피로감과 불안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업무는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앞날에 대한 고민이 그를 짓누르자 지금 하고 있는 일 외의 다른 길을 찾아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험한 적 없는 아예 다른 무언가를 찾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큰돈을 투자하기도 쉽지 않은 선택이었죠. 좋은 방법을 강구하던 이진현 씨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해 들을 수 있는 강좌 중 '쇼핑몰 제작 및 활용' 과정은 그가 하는 일과 관련된 매력적인 선택지였습니다. 무역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던 제품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고 자신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회사에 건의하고 승인을 받은 그는 본격적으로 쇼핑몰 제작 도전에 나섰습니다.

"평소 '신사임당'이라는 유튜버가 만든 콘텐츠를 즐겨 봤어요. 그분 외에도 여러 채널에서 쇼핑몰 제작과 관련해 많이 다루더라고요. 관련된 콘텐츠를

계속해서 보다 보니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선택에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결심은 그를 움직이게 했지만, 막상 학원에 등록하기까지 의문이 남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과연 이게 될까? 판매가 가능할까?'라는 불확실한 궁금증이 마음 깊이 자리했던 것이죠. 그러나 학원 원장님은 그에게 A to Z까지 확실하게 가르쳐준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덕분에 그는 걱정을 덜고 수업에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성장의 추진력이 된 배움에 대한 열정

수업 수강을 시작한 이진현 씨는 다방면의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포토샵으로 온라인 쇼핑몰에 올라갈 사진을 다듬는 방법을 배우고, '고도몰'을 활용해 쇼핑몰의 틀도 잡게 되었는데요. 해당 틀을 바꾸기 위해서 알아야 할 컴퓨터 프로그램도 학습하며 지식을 쌓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쇼핑몰을 개설하고 판매에 나설 때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11번가, 옥션과 같은 플랫폼을 활용했어요. 까다로운 등록 절차 없이 개인정보만 올리면 일정 한도 내에서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들을 통해서 제품을 올리고 판매를 하게 되었죠."

처음 제품 등록을 마친 뒤 1~2주간은 아무도 구매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진현 씨는 학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제품 사진과 설명을 보강하고 구매자를 기다렸습니다. 길지 않은 기다림 끝에 첫 구매가 이루어지고 다달이 주문 건수가 늘어나는 순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눈 앞에 펼쳐지니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고 확신에 힘이 더해졌습니다.

"수업에서 배우는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포토샵으로 시작해 판매 사이트 등록까지 처음부터 하나하나

알려주셔서 좋았죠. 같이 수업을 듣는 수강생 중에서 제가 가장 어렸는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사님께서 가르쳐주신 게 인상적이었어요. 조금 아쉬웠던 것은 두 달 반의 기간 동안 포토샵, 홈페이지 만들기, 프로그램 등을 광범위하게 배워야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좀 더 깊이감 있게 배우고 싶었기 때문에 포토샵과 일러스트 강좌를 새롭게 듣게 되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찾은 새로운 길

이진현 씨는 포토샵과 일러스트 교육도 수강하면서 쇼핑몰에 들어갈 내용을 보다 탄탄하게 채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배우기 전에는 미처 몰랐지만, 두 강좌를 수강하고 나니 실제 무역업무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제품 등록과 판매 이후 구매가 이어지고 고객들이 좋아하는 반응을 보면서 그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면 된다'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도 함께 자라났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우왕좌왕했어요. 첫 주문이 들어왔을 때 제품 정보를 잘못 올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구매자분께 양해를 구하고 주문을 취소하는 일도 있었죠. 주문이 급증하던 시기에 송장을 잘못 뽑아서 A고객에게 가야 할 제품이 B고객에게 가고, B고객에게 가야 할 제품이 C고객에게 가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의도치 않은 사고들로 인해 판매와 관련된 큰 교훈도 함께 얻었어요."

예상치 못한 해프닝도 발생했지만, 이진현 씨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목표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조금 줄여서 온라인 팀을 만들고, 판매 경로를 다각화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관련 인력을 충원하고 새로운 팀 체계로 개편해 업무를 키워가는 것이 그가 꿈꾸는 새로운 청사진이 되었습니다.

"직업훈련 포털을 보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저처럼 새로운 길을 모색하시는 분들이 찾아서 활용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길은 항상 누군가를 위해 열려 있으니 그 길을 개척하기 위해 한 발씩 나아가는 내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유경험자's 꿀팁>

새로운 시작점에 선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 새롭게 도전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꿀팁이 있다면, 우선 수업을 등록하는 것이라 말하고 싶어요. 제 경험상 수업을 등록하면 강의에서 1부터 100까지 알려주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내가 과연 배울 수 있을까? 정말 할 수 있을까?'라고 계속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한 번씩 수업을 들을 때마다 점점 발전하고 완성되어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수업을 듣기까지의 과정이 가장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먼저 도전하고 시작하라는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글 전은서 기자(고용노동부 정책기자단 13기)

해외취업 고민하는 대학생·취준생이라면? 고용노동부 해외취업 지원 정책!

더 많은 정책기자단의 글은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lab_suda)를
통해 확인하세요!

혹시 해외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한 대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입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는 일본취업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해보려고 하는데 코로나 시국이라과 선배님들에게 조언을 구한다든가 그런 것도 쉽지 않아서 조금 힘겹네요."

잡코리아 설문조사에 따르면 2030세대의 84.9%는 기회만 된다면 해외취업을 희망한다고 답했는데요, 그럼에도 국내 취업에 비해 정보가 많지 않아 유입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코로나19로 대학교에서도 선·후배사이 교류가 어려워진 요즘, 해외취업에 대한 정보를 더욱 얻기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해외 취업에 대한 정보를 우리 대학생, 그리고 취준생들은 어디에서 접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안고 있는 청춘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다양한 해외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월드잡플러스

기존 해외취업 정보들은 각종 기관과 부처별로 산재해 있어 원하는 정보를 찾기 어렵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월드잡플러스는 이러한 정보를 통합해 청년들에게 한눈에 보기 쉽고 찾기 쉬운 해외취업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드잡플러스에서는 해외 취업·연수·인턴·창업·봉사 모집 공고를 확인할 수 있고, 외국어 이력서 첨삭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진출희망자를 대상으로 멘토링을 제공하며 구인 혹은 구직자에게 화상면접도 지원합니다. 또한, 해외유망직종을 안내하고 있으며 해외취업정착지원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드잡플러스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해외취업, 해외연수, 해외봉사, 해외인턴, 해외창업 사업으로 나뉩니다. 해외취업 프로그램은 주로 대한민국 인재채용을 희망하는 해외업체와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해외연수 프로그램이란 해외진출 희망 청년에게 연수를 실시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국비지원 해주는 사업입니다. 해외봉사 프로그램에서는 재난복구지원, 민관협력사업, 해외봉사단 파견사업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 현장실무의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감각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해외인턴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으며, 해외창업과 성장을 위해 사무공간, 투자유치,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K-move school

K-move 스쿨

K-move 스쿨은 청년고용지원제도 중 하나로 일본, 미국, 싱가포르 등 해외기업이 원하는 어학 및 직무교육 연수와 수료 후 해외취업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해외기업 맞춤형 연수교육을 지원한다는 것이 K-move 스쿨의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죠. 연수비의 80%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0시간이상(3~6개월)의 단기훈련으로는 인당 최대 580만 원, 600시간이상(6~12개월)의 장기훈련으로는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한편 평균연봉 3,200만 원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 과정인 트랙Ⅱ 과정은 1,000시간(10개월~)의 훈련을 받습니다. 모든 과정은 월드잡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에는 운영 기관에서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해 연수생이 선발됩니다. 연수 이후 출국 지원과 현지 정착 지원, 멘토링도 함께 제공하는 알찬 프로그램입니다.

해외취업알선

고용노동부에서는 양질의 해외 일자리를 발굴하고 해외취업 희망자와 구인업체 간 알선 역시 지원하고 있는데요. 국내 해외취업센터(서울·부산·군산·통영) 및 해외 K-Move센터를 활용해 일자리를 알선하는 공공알선과 국내외 민간 인프라를 활용한 민간알선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알선을 받는데 드는 비용은 없고, 민간알선은 취업처의 연봉 수준에 따라 1인당 200~300만 원의 알선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취업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비자 발급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니 접근 장벽이 낮다는 장점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국내 해외취업센터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해외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해외취업센터를 방문하거나 월드잡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고 방문할 수도 있는데요. 다음 네 곳의 해외취업센터가 오프라인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 **서울해외취업센터**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 금강타워 4층(선릉역 1번 출구)
- **부산해외취업센터**
  부산시 진구 중앙대로 993 롯데골드로즈 빌딩 6층(시청역 1번 출구)
- **군산청년센터**
  전북 군산시 내항1길 4 군산상공회의소 4층
- **통영청년센터**
  경남 통영시 충렬로 31 통영청년세움 2층

네 곳의 오프라인 센터에서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높은 현장감과 1:1 대면 상담을 원할 경우, 해외취업센터를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취업정착지원금

고용노동부는 해외취업과 관련, 각종 프로그램 이외에 금전적인 지원 역시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바로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인데요. 청년의 성공적인 해외취업과 조기정착, 그리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지원금 제도라고 합니다.

이 지원금은 신흥국과 선진국 취업자를 구분해 지원하고 있는데요, 신흥국 취업자는 최대 600만 원, 선진국 취업자는 최대 4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시점과 신흥국·선진국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지원금은 고용노동부가 제공한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지급시점	취업 1개월 후	6개월 후	12개월 후
신흥국	300	100	200
선진국	200	100	100

이처럼 다양한 해외취업 프로그램을 공공기관과 공단,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취업을 생각하고 있는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들이 고용노동부의 프로그램과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쉽게 얻어 취업에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

해외취업도 하고 정착지원금도 받고, 일석이조네요! 해외 취업을 생각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이라면 꼭 체크해봐야겠어요

글 편집실

MOEL News

1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시작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14일부터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 공고했습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코로나19 위기로 가장 큰 고용 충격을 받은 청년층의 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18일에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2021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❶ 누가 지원대상인가요?

인건비 부담으로 청년 신규채용을 주저하는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직)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이 지원대상입니다. 5월 31일 자로 신규 지원이 종료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❷ 어떻게 해야 지원받을 수 있나요?

먼저, 기업은 '20.12.1.~'21.12.31. 동안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보다 청년을 신규 채용한 이후 기업 전체의 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6개월 단위로 총 2회 지급되며, 기업은 신규 채용된 청년에 대한 6개월의 고용유지기간이 초과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❸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신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75만 원씩 최대 1년간(최대 9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더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합니다. 장려금은 고용유지, 근로자 수 증가 등 요건심사를 완료한 이후, 7월 둘째 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❹ 언제,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지난 6월 28일부터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월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❺ 다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유사한 기업지원 사업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으나,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을 참여·수료한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소프트웨어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6월 2일 클라우드 시스템 컨설팅 기업이자 자체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는 '메가존클라우드'를 방문하고 소프트웨어(SW)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정부가 이달 중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대책을 마련하기 이전에 관련 산업의 현황을 확인하고, 인재 양성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됐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 및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정보기술(IT) 업계 뿐 아니라 제조·서비스 등 전 산업에 걸쳐 개발자로 대표되는 소프트웨어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기업들은 시급한 인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직접 인력양성에 나서는 등 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은 인력난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기업이 주도하는 인재 양성을 통해 인력 부족 문제를 적시에 해소하기 위하여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 시연과 인재 양성에 대한 관련 업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간담회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우선,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다양한 기술 시연이 이루어졌으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코로나19 검진(빅노이드), 빅데이터 시각화를 통한 코로나19 디지털 상황판(빅스데이터) 등을 통해 다양하게 확장하는 소프트웨어(SW) 산업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소프트웨어 인력양성에 대한 업계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메가존클라우드 조성범 대표는 "기술 개발의 속도가 워낙 빠르고,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기다리고 있을 여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글로벌 기업인 구글과 협업하여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및 실제 대규모 채용으로 연계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건의했습니다. 이외에도, 클라우드산업협회 이창길 본부장은 '인력 확보는 중소·벤처기업의 생존 문제'라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고, 딥노이드 최우식 대표 및 메쉬코리아 강대준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는 분야별(의료·플랫폼업 등) 특화 교육 과정 개발 및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간 정부가 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 명 양성, 디지털 핵심인재 18만 명 양성 등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 왔지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소프트웨어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엔 부족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서, "6월 중에 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수요에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주도적으로 가르치고,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기존의 공급자 중심 훈련에서 벗어나 빅데이터·게임 등 분야별 선도기업 또는 소프트웨어 관련 협회가 기업 현장을 기반으로 과정을 직접 설계·운영하고 채용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특히,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시행된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 및 노동시장 전망을 바탕으로 '22년 일자리사업 운영방향을 담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동 개선방안은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 논의를 거쳐 제24차 국무회의에 보고됐습니다.

2020년 일자리사업은 24개 부처(청)에서 실시했습니다. 당초 166개 사업 25.5조 원 규모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대응을 위해 추경·기금계획 변경 등으로 8.1조 원을 확대하여, 총 33.6조원 규모로 추진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3·4차 추경을 통해 공공 및 청년일자리 60.4만개(3.4조 원)를 추진, 방역지원 등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하고 청년 등에게 일경험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20년에는 일자리사업을 통해 총 671만 명, 22.6만 개 사업장이 지원을 받았으며('20년 11월 기준, 3·4차 추경사업 제외), 성별로는 여성이 388만 명(57.9%), 남성이 283만 명(42.1%) 참여했습니다. 연령별로는 15~34세가 259만 명(38.6%)으로 가장 많으며, 35~54세 219만 명(32.7%), 65세 이상 101만 명(15.0%), 55~64세 91만 명(13.6%) 순이었습니다. 15~34세는 고용장려금, 직업훈련 유형에 주로 참여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장려금이 258만 명(38.5%)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직업훈련 180만 명(26.8%), 고용서비스 133만 명(19.7%) 순이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일자리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년에는 그간의 성과평가제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마련('20년 11월), 올해 평가부터 적용하여 평가했습니다.

[평가 결과]

'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 완화를 위해 기업의 고용유지를 최우선으로 지원했고, 또한 직접일자리에서도 기존 취약계층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자도 우선선발대상에 포함하는 등 일자리사업이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아울러 업무방식 전환, 비대면 직업훈련 과정 신설 등 일자리사업 전반적으로 탄력적인 운영을 추진했습니다. 이같은 일자리사업의 적극적 운영은 코로나19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이 상대적으로 완화되도록 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일자리사업별로는 '20년 일자리사업 중 145개(내역)사업에 대해 평가지표(정량·정성지표), 만족도 조사, 집행률 등을 종합하여 전문가 위원회가 평가등급을 부여했습니다.

평가결과는 '22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됩니다. 각 부처는 사업별 성과등급에 따라 감액하는 등 '22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개선필요 사업은 별도의 사업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개선방안]

'22년 일자리사업은 그간의 방역 성과 및 백신접종 확대 등에 의한 노동시장 회복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직접일자리는 노동시장 회복에 따라 민간일자리로 우선 진입하도록 단계별로 최대한 유도하는 방향으로 운영합니다.

직업훈련은 현재 수요 대비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신기술 인력공급을 대폭 확대합니다. 고용서비스는 대국민 서비스 접점 확대 및 질적 제고 등을 위해 고용센터 인프라 확충, 단계별 서비스 품질 제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중층적 고용안전망의 조기 안착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고용장려금은 코로나로 인한 고용위기 후 포용적 회복 차원에서 고용창출 지원 강화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로 역할을 확대합니다. 창업지원은 성장잠재력을 갖춘 신산업분야 스타트업과 청년창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나갈 계획입니다.

안경덕 장관은 "위기 국면에서 공공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중심 정책이 버팀목 역할을 했었으나, 이후에는 민간일자리 취업지원으로 우선순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노동시장 회복을 위해 실업자 및 경력단절여성 등이 다시 민간 일자리로 복귀하고, 청년이 신속히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또한, 최근 가속화하고 있는 산업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일자리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4

고용센터 비대면 디지털 취업지원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존 대면 방식의 취업지원서비스에 더해,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식의 비대면·디지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디지털 방식이 새로운 보편적 방식(New Normal)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며, 해외 주요국에서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채용박람회 개최, 실업보험 앱(App) 구축·운영 등 비대면·디지털 취업지원서비스를 확대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용센터 취업지원서비스는 그간에 상담사·내담자 간 친밀감·신뢰관계(라포, Rapport) 및 상호작용을 토대로 한 대면 서비스를 주축으로 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디지털·비대면 서비스를 부분적으로 도입·적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비대면·디지털 취업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디지털 이해 및 활용능력(디지털 리터러시, Digital Literacy)이 높은 청년층 등에게는 평상시에도 비대면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비대면 서비스만으로도 고용센터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집단상담프로그램의 경우 구직자의 취업의욕 및 기술 향상을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성취프로그램과 청년층직업지도프로그램(CAP@)은 작년에 비대면 운영 매뉴얼 개발 등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도 제공했고, 올해에는 비대면 서비스 수요 등을 고려하여 취업희망프로그램(취약계층 대상) 등 다른 집단상담프로그램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대면 집단상담프로그램과는 별도로, 비대면·온라인 환경에 적합한 '소그룹 취업컨설팅 프로그램'을 금년 내에 청년층, 성인 구직자, 취업계층 대상별로 3가지로 신규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비대면·온라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구직자에게 실제 구직활동 및 면접과정 등에서 활용성이 높은 취업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도 기존의 모둠활동 중심에서 비대면이 가능한 개인별 실습활동을 강화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취업특강의 경우 사이버진로센터, 스텝(STEP) 포털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이러닝 및 동영상 강좌를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취업상담 및 기업채용지원을 위한 화상상담시스템도 구축해서 채용·취업지원서비스에 활용됩니다. 현재는 민간기업에서 개발한 화상시스템을 이용하여 면접 지원이나 알선 상담을 하고 있으나, 올해 6월부터 워크넷 내에 화상상담시스템을 탑재하여 상시적으로 편리하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에, 워크넷 상에서 고용센터 상담사가 구직자와 화상을 통해 상담을 실시하거나,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에도 화상으로 연결할 수 있으며, 집단상담·집체교육 시에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올해 5월까지 비대면·디지털 방식을 통해 약 3만 명의 구직자가 집단상담프로그램 등의 구직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1,113개 기업에 대해 총 355회의 화상면접 지원을 실시하고, 377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7회의 온라인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고용센터에서의 비대면·디지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고용센터 비대면·디지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사례

①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자 A) "▲사회초년생으로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느껴 상담을 받고 싶었는데, 마침 코로나19로 대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 집단상담을 받을 수 있어 좋았음. ▲특히 온라인으로 하다보니 시청각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어 만족스러웠고 장소 구애를 받지 않고 노트북 등으로 간편하게 접속하여 편리했음. ▲프로그램 참여시 서로 간의 얼굴, 목소리에 집중할 수 있어 쉽게 몰입할 수 있었음."

② (화상면접 기업 인사담당자 B) "▲당사는 '20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확장할 상황이 생겼지만 코로나19 확산과 구직자들의 구직활동 축소로 채용에 어려움을 겪던 차에 고용센터의 화상면접 지원은 좋은 기회가 되었음. ▲특히 시간 비용이 절 감되고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구직자를 모집할 수 있어 그 효과는 더욱 배가됨. ▲많은 도움을 주신 결과 전년 대비 직원이 약 100여 명 늘었음."

③ (온라인 채용박람회 구직자 C) "▲코로나19로 대면이 어려워져 채용박람회 같은 구직정보를 얻을 수 있는 행사가 줄어들 것 같아 걱정했는데 우연히 검색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채용박람회가 있다고 해서 반가웠음. ▲채용박람회를 온라인으로 하니 직접 행사장소에 찾아가야 하는 부담이 없어 구직 활동을 하는데 사용하는 불필요한 시간과 수고를 줄일 수 있어 좋았음."

MOEL News

5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이 음식 배달 플랫폼 업체에 방문했습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6월 16일 음식 배달 플랫폼 업체 ㈜우아한청년들의 지역 관리사무소인 '배민 라이더스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날 방문은 배달 플랫폼의 운영 현황을 현장에서 직접 파악하고, 기업과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아한청년들은 음식 배달대행앱을 운영하면서 배달 종사자와 기업이 상생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 중입니다.

㈜우아한청년들은 업계에서 유일하게 전업 배달기사와 부업으로 일하는 배민 커넥터 모두에게 산재보험 100% 가입을 지원 중입니다. 또한, 우아한 라이더 살핌기금을 조성하여 안전사고로 생계가 어려워진 배민 이외의 배달 종사자에게 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우아한청년들 사례 발표 이후 정비센터, 라이더 쉼터, 관제센터 등을 순차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라이더 쉼터에서는 청년 배민 커넥터와 배달 플랫폼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정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안경덕 장관은 "플랫폼 산업이 지속 가능하고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종사자의 기본적인 권익 보호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라고 하며, "이를 위해 최근 국회에서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정부 내에서도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향후 입법이 되면, 전업 배달기사는 물론 부업으로 일하는 배민 커넥터 등 모든 플랫폼 종사자가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며, 플랫폼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정책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6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소규모 건설현장 패트롤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지난 6월 1일 세종시 소재 00공장 신축공사 현장을 불시에 패트롤 점검하였습니다. 고위험 현장에 대해 사망사고 위험요인을 예방 점검하여 사업주가 위험요인을 자율 개선 하도록 하고, 필요 시 시스템 비계지원·기술지도 등과 연계했으며 자율개선을 하지 않는 현장은 감독하여, 법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한 행·사법 조치를 취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이 스스로 위험요인을 개선토록 유도했습니다.

동 현장은 골조작업의 마무리 단계로 추락위험이 있는 거푸집 해체 작업이 진행 중에 있어 추락 등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안전난간 미설치 등 추락방지시설 미조치 8건, 낙하물에 의한 위험예방 조치 미실시 2건 등 총 13건의 위험요인에 대해 개선토록 시정지시 하였습니다.

안경덕 장관은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은 '추락' 사고가 빈번하며, 가장 위험한 요인이므로 '추락' 방지조치 등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과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도 당부하였습니다.

패트롤 점검 이후에는 전 지방관서에 "패트롤 점검 이후 안전조치가 불량한 현장은 반드시 감독으로 연계하여 현장의 위험요인이 확실히 개선되도록 엄정조치 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7

항공업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서면으로 2021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을 심의 · 의결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 180일에 90일을 추가하여 2021년에 270일간 유급휴업 · 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지원금 신청이 급증하여 사업장 7만 2천개소 근로자 77만 여명(연인원 228만)에 대해 2조 2,779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5월말 현재 사업장 3만 6천개소, 근로자 26만 명(연인원 62만 명)에 대해 6,524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로 사업주들은 해고가 아닌 휴업 또는 휴직으로 대응하여 과거 외환위기 시와는 달리 대량실업 예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MOEL News

8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위기 지속으로 고용장려금 신청과 지급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업주 인식 제고 및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고용장려금 사업(15개)에 대해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기간 동안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설치되는 전담 창구에 신고하면 되며, 자진 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정수급액만 환수 조치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추가징수액을 부과하지 않고, 지원금 지급 제한 기간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할 예정입니다. 또한, 검찰청과 협의하여 부정수급액, 부정수급액 반환 여부, 처벌 전력 등을 검토하여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최대한 선처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자진 신고 기간에도 전국 고용센터 및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센터(www.ei.go.kr)를 통해 부정수급 제보를 받고, 제보 및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점검도 병행 시행합니다. 아울러,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부정수급 종합 점검 기간을 집중 운영(9~11월 예정)해 부정수급 적발 시 엄격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부정수급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도를 개정했습니다.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고의적인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처음 적발되는 경우라도 최대 5배의 추가징수액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며, “고용장려금이 코로나19 위기상황 및 저탄소·디지털 등 산업구조 변화에 급격한 실업을 막고, 유망산업의 신속한 채용을 유도하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특별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Healing

인생 2막, 불을 켜다

60 슬기로운 의사 생활 속 병원 근무자의 일상 궁금한가요?

64 어디서나 당당하게 벌기 춥거나 덥거나 에어컨 쟁탈전

66 취업과 이직의 치트키 포트폴리오 잘 만드는 꿀팁

68 고용보험이 낯선 우리... 위태로운 일상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72 언택트 시대의 자기 계발 비대면 클래스로 하자!

74 직장인 점심 메뉴 선정 건강하게 해볼까?

76 7월 영화·음악 추천

80 #내일스타그램

글 권찬미 | 사진제공 tvN

슬기로운 의사 생활 속 병원 근무자의 일상 궁금한가요?

율제 대학 병원의 의사 친구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2020년 방영한 시즌 1은 화려한 의술을 펼치는 히어로나 웅장한 서사는 없지만
사람 냄새나는 의사와 환자들의 에피소드와 '미도와 파라솔' 밴드 OST로 시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시즌 2에서도 가슴 따뜻한 스토리와 위트 가득한 유머로 돌아왔습니다.
99학번 의사동기들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율제병원 사람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볼까요?

연휴에도 밤낮없는 병원의 일상
"의사한테 크리스마스가 어딨어요. 다시 들어가요~"

흥겨운 캐럴이 들려오고 함박눈이 내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날. 양석형 교수(배우 김대명)를 남몰래 짝사랑해온 산부인과 레지던트 추민하(배우 안은진)는 데이트 신청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나 석형이 무심하게 거절하자 민하는 홀로 레스토랑에서 쓸쓸히 크리스마스 식사를 합니다. 외로운 저녁 식사 시간도 잠시 캄캄한 밤 민하는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한 손에 들고 함박눈을 맞으며 다시 병원으로 향합니다. 연휴로 인해 일렁이는 바깥 공기와는 다르게 병원의 시계는 여전히 분주하고 또 멈춤이 없었기 때문이죠. 병원에는 휴일도 마다 하지 않고 당직을 하는 간호사들과 수술실과 응급실에서 치열하게 생사의 기로에 놓인 환자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의사들로 가득하네요. 밤낮없이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잠을 줄여가며 근무하는 의료진의 열정과 헌신이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서 잠깐!

워라밸 없는 삶으로 괴로운 당신에게

워라밸 없는 삶으로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나요? 그럴 때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전일제 근로자가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등의 이유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은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인데요. 임금감소액 보전금·간접노무비·대체인력지원금 등을 지원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TEL. 1350), 전국 고용센터(www.work.go.kr/jobcenter)

병원에도 꼰대가 산다?!
“교수님이 꼰대면 이 병원에 꼰대 아닌 사람은...”

한편 새벽 운동을 하기 위해서 라이딩을 나선 간담췌외과의 유쾌한 만능맨 이익준 교수(배우 조정석)는 조깅을 하던 노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것을 발견하고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도착한 응급차를 타고 병원을 오게 됩니다. 마침 응급차가 향한 곳은 근무지인 율제 병원이었죠. 얼떨결에 운동복 복장으로 너무 이른 시간에 병원에 출근해버린 이익준 교수. 황망하게 병원 입구에 서 있다가 채송화 교수(배우 전미도)를 만나게 됩니다. 후배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걸크러쉬를 뽐내는 신경외과의 채송화 교수는 전출된 후배와의 만남에서 “일이 많은 만큼 경험치도 금방 쌓일 거라”며 말하다가 화들짝 놀라며 묻습니다. “방금 나 꼰대 같았지?”하고 말이죠. 그러자 후배들은 “교수님이 꼰대면 이 병원에 꼰대 아닌 사람은 채송화와 친구들밖에 없죠”라며 그를 진정시키죠. 그때 채송화 교수는 깜짝 놀랄 답변을 내놓습니다. “나는 꼰대는 되기 싫거든... 나는 빌런이 좋아! 이 병원 최고의 빌런이 되고 싶어!” 해맑은 표정으로 빌런이 되겠다고 말하는 채송화 교수, 과연 빌런이 무슨 뜻인지 알고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잠깐!

회사에서 빌런을 만나서 괴롭나요?

빌런(Villain)은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나쁜 역할을 하는 악당을 일컫는 말입니다. 혹시 회사에서 만난 빌런의 ‘직장내 괴롭힘’으로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나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분이라면 회사 인사팀이나 고충처리위원회에 요구사항을 전달하거나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민사 및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직장내 괴롭힘 상담이 필요하다면? 아래 문의처를 통해서 꼭 도움을 받도록 하세요!

*문의: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TEL. 1522-9000)

99학번 의사들의 밴드 ‘미도와 파라솔’
“내일은 무슨 곡을 연주할까 우리?”

한편 익준의 동생인 익순(배우 곽선영)과 준완(배우 정경호)의 비밀 연애도 장거리 연애이긴 하지만 큰 문제 없이 잘 유지되고 있고, 천주교의 신부가 되기를 포기한 정원(배우 유연석)은 결국 후배인 장겨울 선생(배우 신현빈)과의 달달한 연애를 시작하죠. 데이트를 시작한 겨울은 선배인 정원에게 고민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병원에서 아이를 잃은 보호자를 어떻게 대할지 난감해서 피하기만 했던 장겨울 선생. 그에게 정원은 “세상에 몇 개월 살지 못한 아이를 잊지 못해 찾아오는 것이니 따뜻하게 대해 드리라”며 선배다운 충고를 건넵니다. 충고를 받아들인 겨울은 무뚝뚝한 자신의 한계를 넘고 따뜻한 마음을 표하죠. 마침 99학번 의사 친구들의 취미 밴드인 ‘미도와 파라솔’은 오랜만에 다시 밴드 연주로 뭉치고 ‘비와 당신’이라는 곡을 연주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냈음에도 쉬이 잊지 못하는 절절한 가사와 병원에서 아이를 떠나보낸 보호자의 뒷모습이 겹쳐지며 드라마는 첫 장을 덮습니다. 한 뼘 더 성장한 의료진들의 모습과 풍성해진 미도와 파라솔 음악이 펼쳐질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 생활’ 시즌 2. 다음 회차에는 어떤 사연이 펼쳐질까요?

여기서 잠깐!

근로자 문화예술제를 아시나요?

‘미도와 파라솔’ 밴드처럼 문화예술 활동에 관심과 열정이 있나요? 그렇다면 근로자 문화예술제에 참가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근로자 문화예술제는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KBS가 함께하는 행사로 근로자의 창의적 여가활동을 유도해 근로의욕을 증대시키기 위해 마련한 문화예술활동의 장입니다. 총 5개의 분야로 가요제, 영화제, 연극제, 미술제, 문학제 등의 분야가 있는데요.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답니다!

*문의: KBS미디어 문화교육부 문화사업팀(TEL. 02-6939-8198)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ww.workdream.net)

글·그림 안쪽인간

〈안쪽인간의 단상〉
어디서나
당당하게 벌기
고용노동부x안쪽인간

직장에서 열받는 일이 생기면
퇴사 충동을 느끼는 동시에
드럽고 치사해서
그만둔다,,

실업급여 조건을 미친듯이 검색하는 거
저만 그런거 아니죠?
사실 수백번의 검색으로
조항도 다 외우고 있음ㅎ
실업급여 조건

실업 급여 받는 상상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것에 안심하기도 하잖아요
실업급여 받으면
최대 6개월 월세는
낼 수 있겠는걸?
※주의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3동안 이직준비하고,,
적어도 굶어죽진
않겠지

또 요즘 코로나로 고용환경이 불안하니
더욱 더 고용보험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이번에
계약만료됐다며
실급 받았어?
응 받았어
실급 덕분에 숨이 좀 트여
2주만 쉬고
다시 취업준비해야지

4대 보험 가입은 근로자에게
정말 중요하니 꼭 가입여부를 확인하세요!
4대 보험 가입 꼭 챙기세요!
확당하지만 생각보다
한 두달 늦게 가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 달 한 달이
소중해요,,
그리고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분들도
고용보험적용이 된다고 하니
꼭꼭꼭 확인해보세요!!

〈안쪽인간의 단상〉
춥거나 덥거나
에어컨 쟁탈전
고용노동부x안쪽인간

여름만되면 사무실에선 전쟁이 시작됩니다.
웅성
웅성
웅성

바로 에어컨 온도 조절 전쟁이요

에어컨 쟁탈전 참가자 1
추위를 겁나게 타는 인간
입는 건 가능하지만
벗는건 불가능하잖아!
너무 덥다고!!!
인간적으로 22도는
아니지 않냐?
여름에 패딩이라도
입으라는거냐!!
에어컨 쟁탈전 참가자 2
더위를 겁나게 타는 인간

에어컨 온도로 조용하지만 치열한
눈치 싸움이 시작됩니다.
세상에,, 너무 추워,,
감자기
왜케 덥지,,
뭐야 너무 더워,,
감자기
왜케 춥지,,

결국엔 껐다 켰다를 반복하며
모두가 냉방병에 걸리는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죠ㅎ
어우,, 머리아파,,
나도 이것 좀
벨려줘,,

글 권찬미

PORT FOLIO

취업과 이직의 치트키 포트폴리오 잘 만드는 꿀팁

수시 채용 시장에서 든든한 무기

최근 공개채용 보다 수시채용이 더욱 많아지면서 경력과 경험을 잘 어필하는 것이 지원자들의 필살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인턴 등의 경력과 경험을 가진 지원자들이 많아지면서 지원자 전반의 경험이 상향평준화 되었죠. 모두가 비슷비슷한 스펙과 경력을 가진 것처럼 보일 때 나를 돋보이게 만들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포트폴리오'입니다.

잘 만든 포트폴리오 열 자격증 안부럽다?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면 해당 직무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해봤고, 또 할 수 있는지 회사 입장에서 지원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말로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나의 능력치를 드러낼 수 있죠. 또 이를 기반으로 면접장에서는 더 깊이있는 질문을 주고 받으며 회사와 면접자 모두가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을지 꿀팁을 알아볼까요?

TIP 1 **단순한 나열은 노! 기획력을 보여주세요**

하루에도 수백 명의 지원서를 보는 인사담당자가 우리의 지원서와 포트폴리오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경력과 작업물이 담긴 단순 나열된 포트폴리오보다는 기획력과 구성력을 가미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키워드로 나의 작업물을 표현하거나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한 단어나 문장으로 강조해서 구성하는 등 작업물들이 지원자의 어떤 특성과 강점을 보여주는 것인지 알 수 있도록 배치해보세요.

TIP 2 **분량을 적절하게, 핵심 역량을 골라 담아요!**

경력이 긴 분이라면 포트폴리오에 담고 싶은 것도 많을텐데요. 하지만 과유불급이란 옛말이 있듯 내가 작업한 모든 프로젝트를 일일히 담으면 보는 이들에게는 오히려 장황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장과 직무에 적합한 프로젝트를 잘 선별해서 싣는 것도 중요한데요. 지원하는 직장이나 직무와 상관없는 업무라면 과감하게 배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TIP 3 **이미지·인포그래픽·표를 이용해주세요!**

담당자가 끝까지 나의 작업물을 궁금해하고 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시각적인 효과를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작업물을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동영상·표·인포그래픽 등을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활용해보세요. 특히 표나 그래프 등을 활용해서 나의 성과를 적절한 수치로 표현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작업물이 너무 용량이 커져서 업로드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안 되겠죠? 고화질 사진이나 동영상의 경우 용량이 너무 커서 모두 싣기에 문제가 될 텐데요. 이런 경우는 링크를 연결하거나 클라우드 등의 기능을 연동하여 작업물을 간편하게 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TIP 4 **레퍼런스가 필요하다면? 관련 사이트를 찾아보세요**

포트폴리오를 만들고는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할 지 모르겠다고 생각한다면 레퍼런스를 먼저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임웹, 크리에이터링크, WIX, MoDoo!, ResumeUP 등의 사이트를 보면 다른 사람의 포트폴리오와 이력서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내가 원하는 포트폴리오를 커스터마이징해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니 잘 활용해보는 것도 좋겠죠?

글 구대진 공인노무사(노무법인 평로)

고용보험이 낯선 우리... 위태로운 일상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코로나19로 위태로운 일상
근로자 여러분 잘 버티고 계신가요?
고용보험의 혜택과 함께라면
그래도 잠시 쉬어갈 힘이 날 텐데요.

Q1 스타트업에서 개발자로 근무하다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퇴사했습니다. 받기로 한 투자 대금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미뤄지면서 급여가 약 6개월 밀렸고, 이런 상황을 버티다가 퇴사했는데, 회사에서 자진 퇴사 처리를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소문해보니 제 케이스는 회사사정에 의한 퇴사로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회사 인사팀에서 자진퇴사로 이미 처리를 해버려서 실업에 대한 국가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밀린 급여도 못받고, 퇴직금과 실업급여까지 받지 못하다 보니 생활이 몹시 힘든 상황인데요. 당장 다음주에 낼 월세도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까요? 다른 곳으로 빠르게 이직하고 싶지만 이것마저도 쉽지 않네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피보험자)는 ①기준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이직사유가 개인사유 등 고용보험법이 정한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③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고, ③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구직급여를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여부와 관련해 이직사유가 가장 중요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개인사유에 의한 퇴사의 경우에는 구직급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인사유라고 하더라도 사용자(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퇴사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사유로 퇴사를 했지만, 그 구체적인 퇴사사유가 임금체불에 의한 것이고, 실제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체불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상담사례에서, 상담자는 6개월간 임금이 밀린 상태에서 생활고 문제로 인해 불가피하게 퇴사를 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이 인정하는(구직급여가 가능한)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이미 회사에서 개인사유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이 일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담자는 사용자로부터 체불된 임금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 고용센터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임을 소명하거나 회사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관련 진정을 통해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받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음을 소명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와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다면 처음부터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현재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을 안내받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구직급여 수급 이후 다른 직장에 재취업하게 될 경우에는 잔여 구직급여에 대해 일정한 기준에 따른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2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타임에 피아노를 연주하는 일을 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손님이 줄고 수입이 감소하면서 결국 식당이 폐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간간히 피아노 레슨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 12월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근로형태가 바뀌어서 애매해졌습니다. 현재 특정 기업에 예술인으로서 소속되어서 연속근무를 하지 않고 사실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도 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회사로부터 이런저런 서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해당 대상이 되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혹여 예술인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등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고 직접 예술활동을 하는 경우에 고용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일정한 요건 하에 구직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주고자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신설,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예술인은, ①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고 있어야 하고, ②일정 기간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의 사업인 문화예술 결과물의 완성을 위해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노무를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제공하고, ③용역계약 당시 만 65세 이하이어야 하고, ④문화예술용역계약 건별로 월 소득이 50만 원 이상이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월 소득이 50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 미만 계약의 "단기예술인"은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며, 1개월 이상 계약의 "일반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계약 건별로 50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인 경우에는 본인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에서, 상담자는 현재 피아노 연주는 사업장 폐업으로 중단되었고,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고 있고, 가끔씩 피아노 레슨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술인 고용보험에서 인정하는 문화예술 관련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문화예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특정 기업에 계약건별로 문화예술용역 노무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단기예술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월평균 소득 50만 원이라는 소득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고용보험에 가입(단기예술인 노무제공 내용 확인신고)하게 됩니다.

만약 특정기업과 1개월 이상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해 일반예술인으로 소속되어 있는 경우, ①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②합산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예술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③계약건별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때에는 사업주가 신고를 하게 되며, 예술인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등을 첨부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의 예술활동 증명은 실제 문화예술활동(노무) 제공 여부로 판단하며, 다만 노무제공기간이나 보수 등을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실관계를 증빙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예술용역 안내나 설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이나 이력 등 확인은 근로복지공단에, 구직급여 등 지급에 관한 사하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본인의 개별 요건에 따른 필요 절차 등을 상담받을 것을 권장드립니다.

한편, 예술인 고용보험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판단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편의점 등 일반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임금을 수령하는 것은 예술인 고용보험과 별개로 근로자로서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그에 따른 구직급여 등 혜택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3 저는 작은 교습소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최근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근무 형태를 바꾸어 계속 근무하고 있는 30대 초반 가정방문 교사입니다. 원래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정규직으로 취직하기로 약속을 하고 애초에 일을 시작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습소도 상황이 어려워지다 보니 교습소에서 소개해주는 아이들을 소개받아서 월급이 아닌 건당으로 돈을 지급 받기로 하고 일을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직일때는 교습소에서 4대 보험을 들어줬는데, 근무 형태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바뀌고 나니까 제가 일일이 챙겨야 해서 번거로워졌는데요. 제가 몇 개월 뒤에 임신할 계획이라 일을 그만둔 뒤의 수입 감소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들어보니 최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등의 혜택을 준다고 들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출산휴가 등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다양한 보장을 놓치지 않고 챙기고 싶은데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근무 형태가 바뀌는 저 같은 경우에도 해당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최근 고용보험법령이 개정되면서 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종사자)도 일정한 요건하에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함은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노무제공계약)하고, 해당 사업주 등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나 교육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은 특고종사자에 해당합니다.

특고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는 만 65세 이전에 노무제공계약을 하고 이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특고종사자가 고용보험 가입시, 보험료율은 특고종사자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하게 되고, 보수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이나 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고, 이후 구직급여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특고종사자의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통산 피보험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사유가 개인사유 등 관련법령에 의한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근로 등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하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특고종사자도 개정법령에 따라 출산전후기간에 따른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①출산이나 유산사산한 날 이전에 특고종사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②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90일, 한 번에 둘이상 자녀 임신시에는 120일) 중에 노무제공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③출산이나 유산사산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산전후급여 등을 신청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이나 유산사산한 날부터 과거 1년간의 월평균보수에 기초하여 지급됩니다.

상담사례에서 상담자는 학습지 등 방문강사이기 때문에 특고종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위 언급한 바와 같이 피보험 단위기간을 3개월 이상 유지하고, 출산전후급여기간 동안 노무 제공을 하지 않아 지급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출산 등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출산전후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Q4 배달 애플리케이션 라이더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약 7여 년을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고, 2년 전부터는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건 바이 건으로 수당을 플랫폼으로 지급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비오는 날 무리해서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다치는 바람에 한 달째 입원해서 누워있습니다. 그런데 동료가 저도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며 한번 알아보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이제껏 그런 정보는 한번도 들은 적이 없어서 보험료를 내거나 신청해본 적도 없는데요. 어디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저처럼 아파서 누워있는 경우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치료비도 문제이지만, 당장 사라진 수입도 문제라 생계가 걱정됩니다. 도와주세요.

2021년 초에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나 택배기사, 학습지 방문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종사자)는 2021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을 적용받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퀵서비스나 대리운전과 같이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예컨대 식당)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예컨대 ㅇㅇ의민족)와 노무제공플랫폼 이용계약을 맺고 노무제공자(예컨대 배달종사자)를 사용하는 플랫폼 기반 직종은 2022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고종사자가 고용보험 가입시, 고용보험료는 특고종사자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하고, 보수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이나 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고, 이후 일정 기간 이상 유지된 이후 수급가능사유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미 퀵서비스 종사자와 같은 특고종사자는 노무제공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산재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보호가 되어 있었고, 다만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한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없었습니다.

종전에는 비용이 일부 발생한다는 이유로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이 제한없이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이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2021년 7월 1일부터는 일정한 법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제외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고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혜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즉, 특고종사자의 질병이나 부상, 임신이나 출산, 육아로 인해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으로 1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에만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인정함으로써 특고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혜택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강화된 제도 시행 이전에 이미 적용제외 신청을 하여 산재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특고종사자도 개정법령에 따라 당연히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상담사례에서, 상담자는 비오는 날 배달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특고종사자로서 산재보상 절차 등을 문의하고 상담 내용에 따라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산재 승인이 된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치료와 관련한 요양급여,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휴업급여 등을 치료종결시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글 권찬미

언택트 시대의 자기 계발
비대면 클래스로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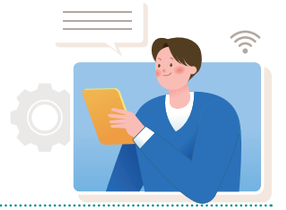
비대면 클래스의 열풍이 거셉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수업이 어려워지면서 전화나 애플리케이션, 웹 플랫폼 등을 통한 비대면 클래스가 인기를 끌고 있는 건데요. 시간이 없어서 자기 계발하기 힘든 직장인들을 위해서 언제 어디서나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비대면 클래스 플랫폼들을 소개합니다.

온라인 클래스 시장의 강자
클래스 101

실무 역량 강화부터 재테크 노하우, 취미 생활 클래스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온라인 강좌를 만나볼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취미 수업의 경우 직접 키트를 집으로 배송해주기도 하는데요. 덕분에 준비물을 발품 팔아 구매할 필요 없이 바로바로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리어, 머니, 스토어 등으로 강의의 종류가 구분되어 있으며 키즈 섹션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클래스101 시그니쳐 강좌를 통해서 프로듀서 그레이, 마술사 최현우, 프로 파일러 표창원, 요리사 이원일, 트레이너 양치승, CEO 홍석천 등 명사들의 강의도 만나볼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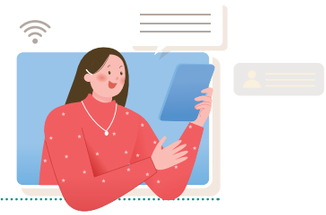
일잘러가 되고 싶다면
탈잉

자기 계발 활동에 특화된 플랫폼으로 꼽을 수 있는 비대면 교육 업계의 신흥강자입니다. 엑셀, 구글 애널리틱스, PPT, 퍼스널 브랜딩, 영상 제작&사진 편집 등 다양한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강좌가 열려있어요. 스테디셀러 클래스로는 인스타그램 운영 전략, 유튜브 영상 제작, 이커머스 트렌드 실무, 웹소설 쓰기 등이 있습니다. 각 튜터들의 강점과 수업 내용을 잘 정리해서 전달해주어 필요한 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강좌가 많아요.



나는야 해외 유학파 대신 전화파
야나두, 민병철유폰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이동이 어려워진 탓에 유학이나 어학연수가 힘들어지면서 영어 공부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해외로 나가지 않고도 영어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루 10~20분가량의 시간을 투자해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있기 때문이죠. 야나두의 경우 영어 회화 수업을 들으면서 1:1 보이스케어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민병철유폰의 경우 원어민과 직접 영어로 대화를 나누고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자신에게 원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선택해서 수업을 들어보세요!



맞춤형 수업을 듣고 싶어!
숨고

인테리어, 이사 청소 등 필요한 전문가를 구하는 것에 특화된 생활 서비스 고수 매칭 서비스 숨고에서도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과외, 댄스, 악기, 외국어 시험, 스포츠, 투자 등의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탭을 열어두었는데요. 내가 원하는 레슨의 형태와 장소, 주기, 시간 등을 모두 커스터 마이징해서 고수 찾기를 등록 해두면, 적절한 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고수가 견적서를 보내오고 선택할 수 있어 맞춤형 수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원한다면 비대면을 넘어서 대면으로도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밖으로 나가기 꺼려지는 상황이라면 집으로 전문가를 불러서도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글 권찬미

직장인 점심 메뉴 선정 건강하게 해볼까?

구내식당이 있는 직장도 있지만, 직접 식당에 가거나 배달 음식을 선택해야 하는 직장인의 경우. 새로운 메뉴를 고민하는 것도 고역이죠. 매일 먹는 점심 식사를 통해서 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너무 튀는 메뉴선택으로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건강하게 식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밥공기에 들었다고 같은 밥은 아니야

백미보다는 현미

한국인의 밥상에 빠질 수 없는 메뉴 밥. 밥에도 백미, 현미, 흑미, 잡곡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뽀얀 쌀밥이 보기에는 좋지만 사실상 건강이나 다이어트에는 백미보다는 현미가 훨씬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현미는 식이 섬유가 풍부해서 변비를 예방하고 체내 콜레스테롤 정상화와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 식후 혈당지수가 백미보다 현미가 더 낮죠.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닌데요. 신장 질환이 있거나 소화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면 현미보다 백미가 좋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핵심은 양질의 단백질 섭취!

식물성 단백질 챙기기

건강하고 슬림한 체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탄수화물보다는 좋은 단백질을 잘 섭취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Healthy Eating Plate는 붉은 고기나 가공육보다는 콩, 견과, 두부, 생선, 닭고기, 달걀과 같은 고단백 식품의 섭취를 권장했죠. 단백질에도 육류에 포함된 동물성 단백질과 콩, 견과 등에 포함된 식물성 단백질이 있는데요. 식물성 단백질을 조금 더 권장합니다.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면 포만감이 생겨 간식을 덜 먹게 되고 심장 마비, 뇌졸중 등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 확률을 낮출 수 있다고 해요.

빵순이, 면순이라서 곤란한가요?

탄수화물 섭취량 낮추기

다이어트를 해본 사람이라면 탄수화물 섭취량을 낮춰야 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식약처는 하루 2~4회에 걸쳐 전체 섭취량의 50~55%의 탄수화물을 먹도록 권장하는데요. 이는 밥 1공기 이하, 국수 1그릇 내외, 식빵 2~3장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합니다. 탄수화물 섭취량을 제한해야 하는 이유는 탄수화물 속 당질의 섭취를 줄이고 식이 섬유의 섭취는 늘려야 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탄수화물 속 당질은 피하고 싶은데, 빵이나 면을 끊을 수 없다면 통밀이나 아몬드 가루로 만든 빵을 먹거나 메밀면이나 곤약면으로 만든 메뉴를 선택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랍니다!

단짠단짠 굴레는 그만!

나트륨이 많은 짠 국물 피하기

밥과 짝궁으로 자주 등장하는 메뉴가 있다면 국이나 찌개일 것입니다. 육개장, 김치찌개, 라면 등. 붉은 국물이 들어간 음식은 맛이 좋지만 동시에 나트륨 함량이 높은데요. 성인의 나트륨 1일 섭취 권고량은 2,000mg. 점심 메뉴로 찌개 한 그릇만 뚝딱해도 권고량을 훌쩍 넘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트륨이 많은 음식을 과다 섭취하게 될 경우 뇌졸중, 위장병, 골다공증, 비만 등의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찌개 메뉴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능한 국물을 적게 먹거나 채소와 우유를 먹어서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다고 하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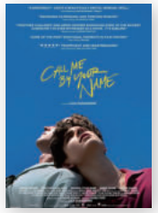
글 권찬미

청량한 기운 가득 랜선으로 떠나는 여름휴가

지중해 바다의 눈부신 풍광

맘마미아

뮤지컬 넘버 '댄싱 퀸'이라는 노래로도 유명하죠. <맘마미아>는 눈부신 지중해의 풍광을 볼 수 있는 영화인데요. 결혼을 앞둔 소피가 엄마인 도나와 함께 아빠로 추정되는 인물은 찾는 다소 단순한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화려한 볼거리와 풍성한 OST로 인해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죠. 아만다 사이프리드, 메릴 스트립, 콜린 퍼스 등 화려한 출연진을 볼 수 있다는 점도 영화의 매력포인트입니다. 2008년 개봉한 1편은 결혼식 이전의 이야기를 다뤘다면 2018년 개봉한 2편은 홀로서기를 결심한 소피가 엄마를 위한 파티를 준비하는 스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여름 소년에게 찾아온 사랑의 열병

콜 미 바이 유어 네임

최근 여름 영화의 대명사로 꼽히고 있죠. 영화 <콜 미 바이 유어 네임>은 1983년 이탈리아 한 가족 별장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잔잔한 이야기입니다. 햇살이 쬐는 한여름 가족별장에 아버지의 보조 연구원으로 청년 올리버가 찾아오면서 17살의 엘리오는 묘한 감정을 느낍니다. 하지만 생에 처음 겪는 감정에 스스로도 혼란을 느끼죠. 영화 <콜 미 바이 유어 네임>은 아름답고 한적한 여름 풍광 속에서 소년의 섬세한 감정을 잘 녹여내 호평을 받았는데요. 영화 속 뜨거운 첫사랑의 열병에 빠진 소년을 만나볼까요?

애니메이션으로 느끼는 대자연의 신비

모아나

<모아나>는 하와이를 배경으로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저주의 걸린 자신의 마을 모투누이 섬을 구하기 위해서 주인공 모아나가 항해를 떠납니다. 섬에서만 살아온 소녀 모아나에게 낯설고 신비한 바다로 떠나는 것은 두렵고 어려운 일이었죠. 홀로 바다로 떠나는 모아나를 가족들은 말리려 하지만 운명에 이끌리는 소녀는 결국 바다에 뛰어들어 모험을 시작합니다. 애니메이션이기에 즐길 수 있는 화려한 영상미와 음향 효과 덕분에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물놀이를 신나게 한 듯한 개운하고 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가슴이 웅장해지는 핫 썸머 뮤직

하늘은 우릴 향해 열려 있어~

듀스 <여름 안에서>

1994년 9월 발매된 듀스의 2.5집 앨범 타이틀곡으로 27년째 사랑받으며 여름마다 회자되고 있는 곡입니다. 여러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하기도 했죠? 유튜브에 올라온 그 때 그 시절 뮤직비디오 영상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발매 당시 곡을 듣지 못했던 MZ세대들도 청량하고 싱그러운 젊은 날의 여름 바다를 떠올리게 하는 노래라며 극찬하는 댓글이 달리고 있다고 해요.

성공적인 팀플의 정석

싹쓰리 <다시 여기 바닷가>

지난 해 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를 통해서 결성된 프로젝트 그룹 '싹쓰리'가 낸 앨범의 타이틀 곡이었죠. 국민MC 유재석과 가수 이효리, 비가 만나서 결성한 그룹인 만큼 스타성과 화제성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팀의 결성부터 작곡가에게 음원을 받아서 곡을 선정하고 녹음하고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전 과정이 공개되면서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흥겨운 멜로디의 타이틀 곡 외에도, 기타리스트 이상순이 차분한 감성으로 부른 버전도 호평을 받고 있어요.

역주행의 신화를 이어가는

브레이브걸스 <치맛바람>

'롤린'이라는 곡으로 각종 음원 차트와 유튜브에서 역주행에 성공하며 대중 가수로 우뚝 선 브레이브걸스가 여름을 겨냥한 시원한 댄스음악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꼬북좌, 단발좌, 메보좌, 왕눈좌 등. 각 멤버들의 특성을 딴 애칭까지 팬들 사이에서는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롤린의 신화를 이어 나온 치맛바람 역시 청량한 멜로디라인과 에너지 넘치는 댄스로 팬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여름 신나는 댄스음악과 함께 휴가를 떠나볼까요?

글 편집실

#내일스타그램

회사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은?

월간내일 편집실로 날아온 독자 사연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독자들의 사연을 보내주세요!

다음 호에 보내주실 사연은
'나의 데스크데리어'입니다.
지면을 통해 나의 멋진 책상을 마음껏 자랑해주세요.
우편이나 메일 lineq@korea.com로
독자 사연*과 사진을 함께 보내주시면,
선정된 사연자에게는 월간내일 굿즈를 드립니다.

* 독자 사연 메일 응모 시 '성함/연락처/주소/우편번호'를 모두 정확히 기입하셔야 선물 배송이 가능합니다.

강주찬 독자님 FOLLOW

회사 내에 정원이 있어요.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이면 어김없이 찾아가서 휴식도 취하고 물속에서 한가롭게 노니는 물고기들과 대화도 나누는 힐링 공간입니다.

박진수 독자님 FOLLOW

사내 휘트니스 센터에서 출근 전후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고 건강도 챙길 수 있어서 좋아요.

정은지 독자님 FOLLOW

야간 업무 끝내고 멋진 야경을 볼 수 있는 옥상 정원이요. 감성적인 음악과 함께라면 더 좋아요.

성진선 독자님 FOLLOW

귀여운 강아지, 고양이를 볼 수 있는
옆자리 대리님 자리를 좋아해요. 힐링 ♬

임성미 독자님 FOLLOW

몸이 찌뿌둥할 때 짬짬이 콧바람 쐴 수 있는
회사 앞 야외 산책로가 있어서 힘이 납니다.

김수현 독자님 FOLLOW

귀여운 고양이들을 볼 수 있는 회사 앞 차고!
#냥이 #귀염뽀짝

늘 봄 퀴즈 온 더 블록!
‘사행시 짓기’ 편

고	용	보	험

지난해 시작된 예술인 고용보험에 이어 2021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2025년까지 플랫폼 노동자와 자영업자까지도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서 ‘전국민 고용보험’을 실현할 계획인데요.
고용보험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생각을 담아서
자유롭게 사행시를 지어서 보내주세요!

퀴즈 답안, 이렇게 보내주세요!

엽서로 제출 시 엽서에 답안을 기입한 후, 정기구독 신청을 표시해 우체통에 넣어주세요.

웹진으로 제출 시 기본 ‘카메라’ 앱을 연 후, QR코드가 보이도록 화면을 조정합니다.
스마트폰 상단에 보이는 링크를 클릭한 후, 정답을 입력합니다.

*QR코드가 스캔되지 않는다면? 스마트폰 설정 > 카메라 > QR코드 스캔 ‘ON’으로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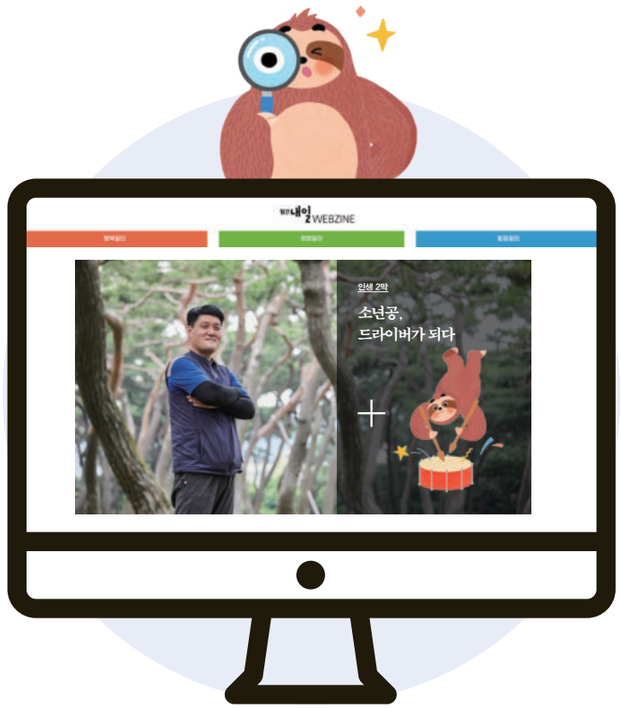
6월호 퀴즈 정답 당첨자

김문정 / 권영우 / 김정분 / 서훈 / 서원오 / 금민영 / 이강섭 / 안성수 / 문희환 / 강주원

퀴즈 당첨자 분들에겐
7월 중으로 커피 쿠폰을
선물해드립니다

〈월간 내일〉을 만나는 방법

<월간 내일>은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의 가치와 중요성,
행복과 기쁨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항상 곁을 지키겠습니다.



www.labor21.kr

❶ 인쇄 잡지로 만나기
엽서를 보내시거나 웹진에 접속해 정기구독을 신청하세요.

❷ 웹진으로 만나기
인터넷 검색창에 ‘월간 내일’ 혹은 ‘www.labor21.kr’을 입력하세요.

❸ 모바일 앱진으로 만나기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월간 내일’을 검색 후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고용노동부